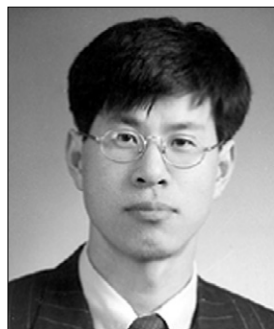


## 우리사회의 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What is our family changing into?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다. 전통사회의 이념형적인 가족 유형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 연령의 상승, 소자녀출산,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 이혼과 재혼의 증가, 독신자의 증가, 혼전 성관계의 보편화, 등 가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자녀의 감소와 기혼 여성 취업 증가 현상을 통해서 변화의 문제점과 전개 방향을 생각해 본다.

소자녀 가족의 경우 다자녀 가족과 비교하여 부부 및 부모 자식 관계의 밀도와 질이 높아지는 반면, 가족의 형식적 안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전반적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급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생애 전체에 걸쳐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즉 남성화 유사한 노동참여 유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정 내에서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취업 여성에게 중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동참여 욕구의 확대는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외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근래에 보이는 급속하며 일관된 초혼 연령 상승과 출산력 감소는 이러한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의 일부이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이다. 사람들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감정적인 위안을 받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우리 삶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위협들에 대처한다. 전통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사회의 경우에도 가족은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흔히 개인의 성취라고 여기는 교육이나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도 실은 가족 배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가족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매우 힘들어지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파생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다. 사실 우리사회의 변화속도로 볼 때, 가족의 변화가 다른 사회 영역의 변화보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족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기에 그 변화의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전통사회의 이념형적인 가족 유형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 연령의 상승, 소자녀출산, 기혼 여성의 취

업 증가, 이혼과 재혼의 증가, 독신자의 증가, 혼전 성관계의 보편화 등 가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는 지난 수십년간 크게 변화하여 왔지만, 현재도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 결혼 연령은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은 계속 증가하며, 이혼과 재혼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변화하며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들은 모두 이러한 현상을 겪었다. 변화의 정도로만 따진다면 서구사회는 우리사회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문제는 서구사회 또한 여전히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는 점이다. 영역에 따라 진행 속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 연령의 상승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는 속도를 더하면서 진전되고 있으며, 독신자의 증가 또한 확대일로에 있다. 소자녀 출산 경향이나 이혼 및 재혼의 증가현상이나 혼전 성관계의 보편화는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우리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서구사회보다 더 빠르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화의 방향은 서구사회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듯하다.

가족의 급격한 변화에 접하여 서구사회에서도 가족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80년대까지 가족붕괴 논의는 학자는 물론 정치인까지 달려들어 이념적인 총들의 양상을

띠었다.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의 변화를 도덕적인 타락으로 진단하고 도덕적인 바로세우기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이 미혼모의 증가 현상에 대한 처방으로 성적인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의 변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품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족의 변화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 삶에 숨통을 트게 하고 나아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목한 가족이라는 이념(Sweet Home Ideology)속에서 묻혀졌던 여성의 인권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변화된 가족이 반드시 전통적 가족에 비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었다.

서구에서 가족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요즈음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가족 유형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음에도 가족의 위기를 외치는 사람은 드물다. 그보다는 변화하는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듯 하다. 사실 전통가족 또한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자녀의 감소와 기혼 여성 취업 증가 현상을 통해

서, 가족 변화의 문제점과 전개 방향을 생각해 본다.

## 1. 저출산과 가족 변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가족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 친족의 영향이 가족 제도를 지배하던 시기에 결혼과 부부 관계의 가장 큰 의미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한 가계의 전승에 있었다. 가족생활이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한 이후에도 자녀의 존재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물론 부부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였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결혼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자녀의 수가 매우 작은 경우에 무엇인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 듯 가족 관계의 긴장이 수반되기 쉬웠다. 요컨대 과거 다자녀 가족의 가족관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또한 관계의 성격이 좌우되었다.

소자녀 가족은 가족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및 관계의 성격에서 다자녀 가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띤다. 다음에서 간단히 소자녀 가족과 다자녀 가족간의 차이를 검토해 보자.

첫째, 적은 자녀수의 출산은 가족 관계의 형성에서부터 차이를 가져온다. 과거 많은 자녀를 낳았을 때에는 여성의 생물학적인 가임 연령과 기간이 가족 관계 형성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였다. 다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의 형성과 자녀의 출산은 거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생물학적 가임 능력을 고려하여 결혼 연령이 20대 초반에 머문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이 늦어지면 자녀를 낳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일찍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대단했다. 반면 한명이나 혹은 두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규범이 된 오늘날, 결혼의 결정은 과거에 비하여 자녀를 가지는 행위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결정의 영역이 되었다.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과 함께 결혼 후 사회적 참여도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회적 역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결혼을 하려는 만혼 경향을 가져왔다. 즉 결혼 연령의 상승 -특히 여성의 경우-은 많은 부분 소자녀 출산 관행과 이것의 파생적인 결과로 결혼 후 자녀의 출산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계획과 선택의 영역이 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결혼의 시기만이 아니라 자녀를 가질 것인가 여부 및 자녀를 낳는 시기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선택의 개입이 크게 작용하여 가족 이외의 삶의 영역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즉 결혼과 자녀의 출산 양육간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결합 방식이 출현하였다.

둘째, 소자녀 가족은 다자녀 가족과 비교하여 가족 관계의 중심축이 자녀 중심으로부터 부부 중심으로 이전하게 된다. 소자녀 가족의 가족주기는 다자녀 가족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출산력조사를 이용해 우리나라 가족들의 평균적인 생애주기를 계산해 보면, 네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자녀를 중심으로 한 시기가 28년에 걸쳐있음에 비해 부부가 중심인 시기는 1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녀를 한 명만 둔 경우 자녀 중심의 시기보다 부부 중심의 시기가 더 길며, 배우자 중 한사람 -평균적으로 여성임-이 홀로 지내야 하는 시기까지 합할 경우 가족의 생애 주기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기간의 단순 비교가 절대적인 삶의 비중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소자녀 가족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다자녀 가족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더 클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부부 중심의 가족은 가족관계의 형식적 안정성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형식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의 내용과 질에 관계없이 가족 관계의 형식이 계속 유지되는가 여부를 의미한다. 부부 중심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의 유지 여부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자녀 중심 가족과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과거 자녀 중심 가족에서는 부부간의 관계의 질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때문에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였다. 반면 부부 중심의 가족에서는 부부간 관계의 질이 악화될 경우 가족 관계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넷째, 부부 중심 가족은 자녀 중심가족과 비

교하여 부부간 관계가 보다 대등하게 유지되며 관계의 밀도가 높다. 부부 중심 가족의 경우 부부간의 관계에서 상호간 헌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쌍방간에 대등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간 관계는 쉽게 긴장될 수 있다. 이는 거꾸로 부부 상호간에 부부 관계에의 헌신을 높이고 대등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부 중심 가족에서 남성의 가족에 대한 헌신도는 자녀 중심 가족의 경우보다 높아진다. 가족의 형식적 안정성은 부부 중심가족이 낮지만, 실질적 내용에 있어 부부간 관계의 정도는 자녀 중심 가족보다 높을 수 있다.

다섯째 부부 중심 가족은 가족 자원의 배분에서 자녀 중심 가족과는 다른 양태를 띠게 된다. 자녀 중심가족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및 사회화에 가족의 모든 자원이 투입되며 이는 부모의 활동력이 떨어진 노후에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부부 중심 가족의 경우 부부의 삶에 필요한 자원은 부부 자신이 조달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띠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남김없이 퍼부어 주는 식의 자원 배분 행태는 줄어들게 된다. 부모와 자식의 세대간 자원의 배분에 일정한 선이 그어지게 되며, 자녀로부터의 물질적 및 비물질적 부양 기대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여섯째, 소자녀 가족은 다수의 자녀를 둔 가족과 비교하여 부모와 자녀간 관계의 밀도와 질이 높다. 부모의 제한된 관심과 시간을 소수의 자녀에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

시간에 관계의 밀도가 높아진다. 다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한두 자녀의 양육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자녀를 통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소자녀 부모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막혀 있다. 따라서 소자녀 부모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돈을 투입하여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의 질은 소자녀의 경우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도 형제 관계에 상대적으로 덜 자원이 투입되는 반면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소자녀 가족의 경우 다자녀 가족과 비교하여 부부 및 부모 자식 관계의 밀도와 질이 높아지는 반면, 가족의 형식적 안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기혼여성 취업 확대와 가족변화

20세기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사건을 들라면 자녀의 수가 감소했다는 점과 함께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했다는 점을 드는데 대부분의 가족학자들이 동의한다. 이 두 사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구 사회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자녀수의 감소가 20세기 중반에 거의 완료된 변화라면, 기혼 여성 취업의 경우 20세기 후반에 들어 가속화되면서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 변화로서 가족의 모든 양태를 크

게 바꾸어 놓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10~20년의 간격을 두면서 저출산이 먼저 진행되고 있어서 기혼 여성의 취업 확대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저출산과 여성 취업은 상호간 인과관계를 교환하고 있다. 즉 저출산은 여성의 가족 밖에서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거꾸로 여성의 가족 밖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출산 자녀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변수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매개 요인 및 다른 제삼의 변수에 의하여 동시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출산 감소와 여성 취업 확대간의 관계를 간단히 검토해 본다.

여성의 취업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든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맡아야 하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부담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예상한 직장에서의 차별과 편견에 기인한다. 여성의 취업 형태는 쌍봉형으로 즉 혼인 이전인 20대 후반에 취업율이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자녀의 집중 양육 시기인 30대 초중반에는 감소하고 다시 자녀가 학교에 취학하는 40대 초반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최고점에 도달하는 유형을 보인다. 이렇게 여성의 출산과 양육시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쌍봉

형 구조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일반적으로 보였던 양태이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후반에 들어 과거 여성 노동 특유의 쌍봉형 구조는 남성과 유사하게 30대 후반에 최고조에 달하는 단봉형의 형태로 이전하였다.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지적되지만, 여성이 취업을 위하여 자녀를 적게 낳는 식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소자녀 출산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취업 증가는 여성 노동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산업 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 수준의 상승, 여성의 사회적 의식 성장 등의 다른 요인들에 더하여 소자녀 출산이 여성 노동을 확대시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제조업 중심으로부터 20세기 후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일의 내용에서 과거 육체적인 성격의 업무의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사무와 대인관계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는 여성의 일로 적합하다는 이념이 확산되었다. 한편 선진 산업국의 경우 인구 성장의 둔화로 새로운 남성 노동인구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지금까지는 유희 노동력으로 전쟁 등의 비상시나 혹은 임시적인 성격의 일자리에 서만 활용하던 기혼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 20세기 전반까지는 남성의 노동력 공급이나, 일의 성격이나, 여성의 출산 및 가사에 소요되는 노력 등의 모든 조건이 기혼 여성- 특히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를 어렵게 하였다.

소자녀 출산 경향은 신규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두 가지로 기여한다. 하나는 총 노동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서 기혼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및 가사와 관련된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서 가족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분의 노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편 소자녀 출산 경향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가부장제적 남녀간 성역할 분업 구조를 약화시킴으로서 여성의 가정 밖의 취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이념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기여하였다.

거꾸로 여성의 취업 확대는 소자녀 출산 경향을 촉진시킨다. 여성의 가정 밖 역할 확대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포기되어야 하는 기회비용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 때문에 가정 밖에서의 활동에 제약과 불이익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헌신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들이는 관심과 자원은 감소한다. 출산 양육 및 전반적 가사 노동의 남녀간 분담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현재의 구도에서,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가정 밖과 안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과 불이익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한,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과거에 출산 행위가 여성의 선택권 밖에 존

재했던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이 이러한 이중의 부담에 접하여 집밖의 노동을 포기하고 집안의 노동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였다. 사실 집밖의 노동의 기회가 여성에게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 여성들에게 출산을 줄이는 대신 집 밖의 노동을 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반면 부부 중심 가족에서 출산과 가정의 사안에 대한 결정이 부부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특히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서 여성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주도로 자녀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일부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자녀의 연령이 낮은 집중 양육의 시기에는 여성이 노동 시장으로부터 퇴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전반적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급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생애 전체에 걸쳐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즉 남성과 유사한 노동참여 유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불완전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남성 노동 공급의 부족 현상은 전반적으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는 일부 직

종을 중심으로 여성의 참여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는 노동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요인보다는 교육 수준의 상승과 서구 문화의 확산으로 여성의 사회의식이 높아지면서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측면이 우세하다.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정 내에서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취업 여성에게 중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동참여 욕구의 확대는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외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근래에 보이는 급속하며 일관된 초혼 연령 상승과 출산력 감소는 이러한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의 일부이다.

북구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세기 후반에 들어 극도의 저출산 현상에 접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남성과 사회가 공동으로 맡는 방향으로 노력하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왔다. 결과 가정의 안과 밖에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과거 여성에게 주로 부과되었던 문제가 남녀 공통의 사안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에 보였던 결혼 및 출산 기피 경향이 감소하고 대신 결혼을 하여 새로이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 평등화 노력이 축적되어 비로소 '90년대 후반부터 일부에서 조금씩 관찰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저출산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선진 산업국의 경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녀 선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시도된 직접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거의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가족 내에서 출산 및 양육과 가족 밖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요약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다. 전통사회의 이념형적인 가족 유형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 연령의 상승, 소자녀출산,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 이혼과 재혼의 증가, 독신자의 증가, 혼전 성관계의 보편화, 등 가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자녀의 감소와 기혼 여성 취업 증가 현상을 통해서 변화의 문제점과 전개 방향을 생각해 본다.

소자녀 가족의 경우 다자녀 가족과 비교하여 부부 및 부모 자식 관계의 밀도와 질이 높아지는 반면, 가족의 형식적 안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전반적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급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생애 전체에 걸쳐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즉 남성과 유사한 노동참여 유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정 내에서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취업 여성에게 중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동참여 욕구의 확대는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외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근래에 보이는 급속하며 일관된 초혼 연령 상승과 출산력 감소는 이러한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의 일부이다. 